

## 경제신문 스크랩 양식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MS에 맞선 구글 AI신무기...처리용량 '챗GPT의 3배'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71220041>본문  
(본문 내용 복사)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연구진 중 일부가 독립해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2’를 내놨다. 클로드2는 챗GPT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AI 챗봇이다.

앤스로픽은 11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클로드2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챗봇의 가장 큰 특징은 10만 토큰에 달하는 넉넉한 입력창 용량이다. **오픈AI의 챗GPT보다 입력창 용량이 세 배가량 크다.** 수백 쪽에 달하는 책이나 논문을 통째로 프롬프트 창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토큰은 텍스트의 최소 단위다. 10만 토큰은 7만5000단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생성 AI 기술 경쟁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MS는 오픈AI, 구글은 앤스로픽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클로드2는 각종 질문에 완성도 높은 답변을 했다. 친구와 대화하듯 친근한 문장도 인상적이었다. 먼저 챗GP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클로드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저는 그저 도움을 주고, 해롭지 않고, 정직하기 위해 만들어진 AI 비서”라고 설명했다. 이 답변에서 앤스로픽 측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적 측면을 엿볼 수 있었다. 앤스로픽은 생성 AI의 사회적 편견, 비윤리적 검색 결과 등이 논란이라는 점을 감안해 클로드2에 ‘헌법적 AI(CAI)’ 기술을 적용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2021년까지 데이터로 학습한 챗GPT가 오답을 내놓은 대표적 질문이다. 클로드2는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함께 내놨다. 이 정보엔 오류도 있었다. 클로드2는 “61세의 나이로 취임한 한국의 최고령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으로 취임 당시 **75**세였다.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인가’라는 질문엔 “독도는 일본해(동해)에 있는 분쟁지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독도-다케시마 영토 관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의 챗봇 바드와 챗**GPT**는 온도 차가 있긴 했지만 같은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라고 답한 바 있다.

앤스로픽은 최대 **7만5000**단어 분량의 문서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엔 <위대한 개츠비> 소설책 한 권을 통째로 입력하는 테스트도 했다. 그 결과 클로드2는 **22**초 만에 소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냈다. 챗**GPT**의 경우 **GPT-3.5** 기반은 **3000**자, 유료 버전인 **GPT-4**는 **2만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지난 두 달간 슬랙과 노션, 쿼라 등에서 클로드2의 검증 작업을 거쳤다”며 “이미 **35**만 명이 넘는 사용 예약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과 영국 사용자에게 클로드2를 공개한 뒤 수개월 내로 사용 가능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앤스로픽은 AI업계에서 ‘1군 기업’으로 분류된다. 지난 **5**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재로 열린 백악관 회의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와 함께 초대되기도 했다. 테크크런치가 최근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향후 **2**년간 **5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12**개 이상의 주요 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앤스로픽은 오픈AI 창립자 그룹의 일원이던 대니엘라 애머데이, 다리오 애머데이 남매가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작년 말 클로드의 베타버전에 이어 올 **4**월 클로드를 출시했다. 구글은 **3**월에 **3**억달러를 투자해 앤스로픽 지분 **10%**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협력관계에 있는 앤스로픽이 생성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MS-오픈AI** 동맹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챗**GPT** 앱 다운로드 횟수와 트래픽은 감소세로 반전했다.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챗**GPT**의 글로벌 트래픽(**PC** 및 모바일 합계)은 **6**월 전월 대비 **9.7%** 하락했다. **GPT-4**를 적용한

	<p>MS의 검색엔진 Bing의 점유율(2.8%)도 구글의 높은 점유율(92%)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p> <p>업계에선 클로드2를 ‘구글의 두 번째 칼’로 평가한다. 이 회사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LLM) ‘팜2’를 적용한 ‘바드’를 내세워 MS를 견제하고 있다. 클로드2를 활용한 서비스가 추가되면 구글의 AI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p>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p>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닌, 희망직무와 관련된 사업의 방향성 /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생각하며 읽어보세요!</p> <p>추가적으로 추가조사 포인트를 위한 키워드를 잡으시면 더 좋아요!</p>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p>‘헌법적 AI(CAI)’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헌법적 AI (Constitutional AI) :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과 영향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고민을 다루는 개념.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와 법률 체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제한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li><li>- CAI (Context-Aware AI) : 인공지능 시스템이 주어진 상황 또는 문맥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는 기술. CAI는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li></ul>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튜디오	<p>핵심정보 : 구글과 협력 관계에 있는 엔스로픽이 Chat GPT의 처리용량에 3배인 클로드2를 출시했다.</p> <p>상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챗 GPT보다 입력창의 용량이 세배 크다.</li><li>2. 최대 7만 5천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서를 한번에 분석할 수 있다.</li><li>3. 클로드2는 헌법적 AI(CAI) 기술이 적용됐다.</li></ol>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헌법적AI에 관한 견해</li><li>- MS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중인 구글 검색엔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싶은건지</li></ul>
연관기사 링크	